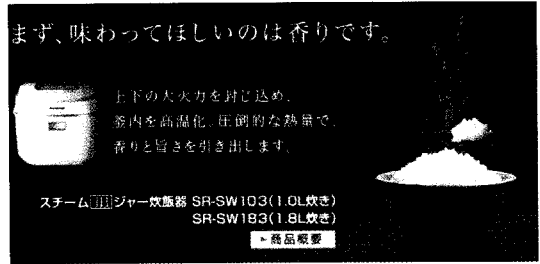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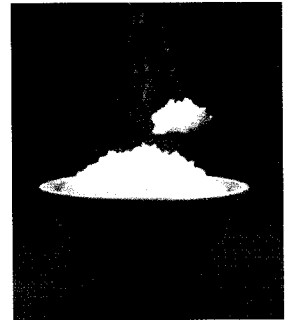


향기인쇄로 만들 수 있는 향

"할 수만 있다면 향기를 배달하고 싶다"



보통 향기인쇄는 꽃 향기, 과실의 향기 등 향수의 향이 많다. 그에 비해 구운 빵 향기가 나는 인쇄는 제작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 할 수 없었다. 그



러던 중, 최근 클라이언트(마쓰시다전기)의 요청으로 전기밥솥(でんきすいはんき)으로 누룽지의 향을 재현하는데 성공했다. 처음에는 구워진 향을 원했지만, 미묘한 향의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누룽지'의 구수한 향에 가깝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테스트는 누룽지향, 우메보시향(일본 전통음식), 미소시루향(일본 된장국), (생선)양념구이 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누룽지 향을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 4종의 향의 개발을 진행 했다. 향기인쇄는 향료회사에 향료 제작을 의뢰해 그 향유를 마이크로캡슐에 밀폐 봉입하여 잉크화해 스크린 인쇄한 것이다.

광고는 효과를 크게 하는 것이기에 잉크를 두껍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를 위해 인쇄방법은 스크린 인쇄를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향기인쇄 사용의 초점

용지는 코트지 4×6판, 135kg 이상을 사용한다.(얇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인쇄한 책을 쌓아놓으면 브로킹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잡지의 대향페이지에 OP니스를 사고를 방지한다.

광고실시 상황

잡지광고로 'LEE 7월호', 'Lucere! 7월호', '식약 7월호'에 마쓰시다전기의 밥솥광고가 게재되

향기인쇄 · 감온인쇄 · 실버UV인쇄

부가가치 인쇄물로 각광

2007년에는 인터넷의 광고비가 잡지의 광고비를 추월했다. 이런 현상은 전자미디어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매체 미디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가운데 인쇄의 유효성은 다시 각광 받고 있다. 다른 미디어가 할 수 없는 오감에 호소하는 특수한 인쇄 및 가공을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제품과 기법을 소개한다.

었다. 점두광고는 A4사이즈 두꺼운 용지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없었던 광고는 광고주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실현된다.

보통 잡지 광고의 경로는 '광고주 → 광고대행사 → 출판사 → 인쇄회사'의 순이지만 향기인쇄의 특수성을 감안, 광고주(마쓰시다전기) → 인쇄회사(다이나폰인쇄)의 경로를 밟았으며 직접 대화를 한 덕분에 광고주의 의향을 잘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카피를 '수저 위에 놓인 밥을 문질러서 (지면)광고에서 향을 음미해 주세요' 라고 유혹하고 있다. 독자는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점포 앞에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이 캠페인은, 텔레비전 CM과 연동시켜 방송되고 있다.

출판물에 큰 변화준 감온인쇄

온도변화에 표지의 표정이 바뀐다



표지를 시작으로 박력 있는 편집을 단행한 '주간 모닝'의 표지는 표지전면의 은박압력 인쇄를 계속했다.

"2006년 39호에서는 '모닝지 사상 처음!! 표지를 냉장고에 15도 이하로 차갑게 하면, 표지에서 대사가 가득 나오고, 읽으면 즐겁습니다. 금주의 표지는 차게 하면 무언가 일어납니다"라는 카피를 은박압력 인쇄했다.

주간지의 기획은 비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라비아 평판인쇄를 했다. 또한 2008년 33호에는 차갑게 하는 표지 제2탄을 기획했다. 15도 이하로 차갑게 하면 눈동자와 입이 커진다. 이것은 펀치라는 스크린인쇄를 한 것이다.

감온인쇄의 포인트

반응을 빠르게, 감도를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잡지 광고는

색이 지워지거나 색이 돌아가는 것이 빨리 반응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감온잉크의 유명한 제조사의 잉크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감온인쇄의 유의사항

보통 감온인쇄는 스크린인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라비아평판인쇄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 ① 감온인쇄의 변색온도 : 보통 20~60℃에서 설정할 수 있다. 오차는 보통 2~3℃이다. 정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1℃의 잉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색상에는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코र्ट 타입은 15℃, 체온변화 30℃, 뜨거운 용도는 40℃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② 색변화 : 착색을 하는 용도인가의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③ 감온인쇄의 온도설정
 - 아래의 숨겨두고 체온변화를 시키는 기획인 경우라면, 사용하는 계절, 지역, 장소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 서늘한 겨울, 가을, 봄이 좋지만, 여름 같은 온도에서는 감온잉크가 소멸되어 아래 종이에 최초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온도를 다소 높게 설정한다.
- ④ 내광성 : 내광성에 약하기 때문에 옥외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해가 잘 드는 곳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⑤ 정밀성 : 세밀한 그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오프셋에 비해 인쇄가 조악하다.
- ⑥ 위치 설정 : 종이의 신축에 따른 울림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⑦ 감온잉크의 색 : 샘플에 따라 선택한다. (컬러 차트에 따른 색의 지시는 어렵다)
- ⑧ 색 남음 현상 : 색을 제거할 때, 약간의 색이 남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검은색 감온 잉크는 오프셋의 아래 종이에 감추기 때문에, 하지에 일러스트를 할 때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하지가 사진으로 완전히 선명해 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⑨ 하지의 모양 감추기 : 일반 색을 감온잉크와 같은 색으로 농도를 떨어뜨려 사용하면 옅은 그림과 지문을 인쇄하면 보기 힘들다. 일반 색 컬러에 감추는 경우, 보통은 감온인쇄의 검은색 2도 인쇄가 필요하게 된다.
- ⑩ 감온인쇄는 표면은 니스 혹은 라미네이팅(PP를 부착하는 등)한다. 니스의 경우는 감온인쇄의 부분보다 한번 돌려 크게 한다.
- ⑪ 감온인쇄는 한꺼번에 대량인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조금씩 하거나 빼어내는 편집스타일로 가공해야 한다.

실버 UV인쇄(스크린인쇄)



가는 실버를 섞는 것이 가능한 UV인쇄잉크를 사용하여 스크린인쇄를 하면, 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실버의 사용이 붙인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 여성지의 표지나 광고, 라메나이루실, 그리텐카드 등에 사용하며, 증가세에 있다.

지난봄에 '요코하마 워커 NO.8' 10주년 기념에 표지의 타이틀에 '썩' 색의 실버가 들어가 UV인쇄가 사용되었다. 여성 모델이 양복과 큐빅 핑크 브래지어의 색과 같은 색의 폴장이 배경으로 백의 노란색과 콘트라스트가 매우 대조적이었다.

제조방법

오프셋 타이틀로 최대한 진하게 인쇄하여 그 위에 '하늘' 색 실이 들어간 UV인쇄로 인쇄하게 되면 깊이가 있어 효과적이다. 실버는 폴리에스테르를 증착 가공한 것으로 가늘게 간 것이다. 입자의 직경은 0.01mm. UV잉크는 30% 실버를 집어 넣었다. 실버의 'GLITTER견본'은 35종류나 된다. 단지 실제 은이 변색되기 때문에 사용이 부적합하다.

음악전문 서적 'mihimaru GT mihimaLook Book'의 커버 타이틀에는 홀로그램의 무지개 실버가 사용되어, 호화스러운 책이 되었다.

고휘도 바 프린트(스크린인쇄)

고휘도 바 프린트는 진주나 구름비늘처럼 광택도와 색채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빛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이는 각도에 따라 인쇄면의 색이 변화하는 편광효과이다. 대단히 보기 좋고 멋있기 때문에 여성과 디자이너 등을 중심으로 인기가 있다.

2007년 1월호 본지(프린터스 서클)에 소개되었을 당시, 잡지의 표지에 사용하였을 뿐이지만, 그 후 사진집의 커버, 캘린더,

크리텐카드를 비롯, DVD 패키지 등에도 폭넓게 사용되었다. 앞으로도 사용처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스크린인쇄의 사용사례가 더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프셋인쇄기에 부착되어 있는 니스코터로 편광 바를 도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의 방법도 알고 있는 위에서 해당하는 기획에는 어떤 방법이 적합한가 고려하게 되었다.



정리

위에서 이야기된 것 외에도 부가가치인쇄는 무척이나 많은 종류가 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부가가치인쇄의 사례를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나서 자사의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적용해 보는 것이 부가가치 인쇄가 지니는 진정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주)DNP 테크다스市谷생산관리부 차장 칸무리 후미다카·프린터스서클 9월호

번역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